

소설과 영화에 나타난 모성의 양가성

Ambivalence of Motherhood – Based on the Nove and the Movie

음 영 철
삼육대학교

Eum yeong-cheol
Sahmyook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한국적인 어머니와 모성을 드러낸 소설과 영화를 중심으로 모성의 양가성을 탐구한 것이다. 21세기에도 여전히 모성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전유물이 되어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예술은 모성의 양가성을 부각시키며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제로 남아 있다. 그로 인해 인간의 소외와 소멸을 논하는 이 시대에도 모성성의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I. 서론

과거와 달리 2000년대 이후에 형성된 모성 담론의 근저에는 모성에 대한 차이와 공감의 형성되면서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슷한 시기에 모성을 주제로 한 소설과 영화가 어떻게 모성 담론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도 인지도가 상승한 작가 신경숙과 영화감독 김기덕의 작품을 중심으로 모성 담론을 비교·대조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두 작품에 나타난 숭배와 억압의 모성성이 양가적으로 발현되는 양상을 분석하여 그 특징적 단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2008)와 김기덕의 『피에타』(2012)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모성 담론으로 파헤친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장르가 다르고 내용이나 이야기의 층위가 서로 상이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주체의 양가성을 보여주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모성’이 양가적으로 발현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존하는 한국의 모성 담론이 개인의 윤리 차원이 아닌 자본주의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엄마를 부탁해』에 나타난 전능과 무능의 양가성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따른 모성 신화를 잘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자식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내한 엄마의 실종 사건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이 소

설의 기본 서사는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로 시작되어 “엄마를 잃어버린 지 구 개월째다.”로 마무리된다. 소설은 모두 네 개의 장과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으며, 큰딸, 큰아들, 아버지가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가면서 가부장제 하에서 희생된 어머니의 소중함을 성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체인 어머니와 객체인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인데, 어머니는 이 작품에서 철저히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어머니는 사랑의 주체라기보다는 헌신과 억척 모성에 근접한 대상으로 묘사된다. 한국 사회가 독점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면서 어머니는 개인의 위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의 소멸을 경험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어머니는 개인의 자아가 없다. 개인적 자아가 없는 어머니는 주체로 존재할 수 없기에 작품에서 어머니란 인물은 ‘자식이 존재 한다’는 조건 하에서 어머니로서의 기능만 수행한다.

이 소설의 앞의 세 개의 장에서 어머니의 모습은 한국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철저히 길들여진 ‘억척모성’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Good Mother)’가 되기 위해서 희생을 감내해야만 한다. 여성에게 극도의 자기희생을 요구하는 이유는 좋은 가문을 유지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어머니는 ‘나쁜 어머니(Bad Mother)’가 된다. 이 소설에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부권을 상징하는 경제권을 도맡아하며 가장의 역할까지 떠안아야 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개인/여성이 지워진 자리에 가족/모성이라는 이름으로”[1] ‘자식’을 위해 산 것이다. 따라서 자식이 없으면 어머니의 존재는 부재할 수밖에 없다.

2. <피에타>에 나타난 복수와 용서의 양가성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를 뜻하는 영화 제목인 <피에타>는 악마 같은 남자 '이강도'에게 엄마라고 주장하는 '미선'이 갑자기 찾아오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혼란을 그려낸 영화다. 영화 <피에타>는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비탄에 잠겨있는 모습을 묘사한 많은 미술들 이후에 영상으로 만들어낸 또 다른 상징의 피에타라 할 수 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인 '피에타'의 상징성은 소설 『엄마를 부탁해』와 영화 <피에타>의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엄마를 부탁해』에서 주인공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찾아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피에타 상 앞에서 "엄마를, 엄마를 부탁해"라며 기도를 올린다. 이와 같은 서사적 묘사는 영화 <피에타>의 포스터와 마찬가지로 피에타의 조각상을 완벽하게 재현하여 '자비'를 간구하고 있다.

크리스테바는 모성의 신화적 측면이 동정녀 마리아와 동일시를 통해 획득된다고 본다. 중세 초기에 대두된 성모 마리아는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는 헌신적인 어머니상이다.[2] 이러한 신화적 모성성에 나타나는 어머니는 항상 자아가 없다. 또한 바르트에 의하면 사회가 '성모'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것은 가부장제가 성모를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모성을 강요하고, 나아가 자신의 남성 우월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3] 평화와 희생의 복합체로서 아들의 죽음 앞에 넘어진 피에타의 어머니인 성모 이미지는 사실 여성의 육체를 타락하고 불결한 도덕적 오염의 원천을 형상화하는 남성-유아적 불안 환상을 역투사한 것이기도 하다.[4] 그러나 영화 <피에타>에 나타난 여주인공은, 남주인공 이강도의 엄마라는 역할을 대항하면서, 강도로 하여금 모성을 불러일으키는데 '순결한 모성' 이미지라기보다는 성모와 창녀가 뒤섞인 양가적 모성 이미지로 그려진다.

<피에타> 이전의 김기덕 영화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가 인간을 동물로 전락하게 만들었음을 깨닫는 과정을 엿기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그로 인해 그의 영화를 보는 관객 또한 공범임을 자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에타>는 미선이라는 여성의 양가적 태도를 통해 개인의 원한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사회 구조적인 폭력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데서 그 작품성이 인정되는 영화로 볼 수 있다. 이 영화는 단순하게 '피에타' 이미지를 차용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복수'에서 '용서'로 심리가 변해가는 미선의 모성뿐만 아니라 강도도 궁극적으로는 모성의 양가성을 경험하고 미선의 전철을 밟게 만든 데서 그 미학적 존재 가치가 있다. 그리하여 '자비를 베푸소서'를 뜻하는 영화 <피에타>는 모성의 양가성을 통해 자본주의로 인해 몰락한 인간 세계에 자비와 구원만이 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II. 결론

한국 현대소설과 영화는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실체인 어머니를 모성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시켜 주제를 형성하였다. 시대적 조류에 따라 소설과 영화에 나타난 모성성은 과거를 답습하기보다는 변용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모성의 양가성을 통해 밝혀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설과 영화에 대한 모성의 양가성을 연구하였다.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설 『엄마를 부탁해』에 나타난 어머니는 남편이 부재한 한 가족의 수호신으로 나타날 때는 전능한 모성으로 나타나지만, 큰아들에게 큰딸을 맡길 때는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죄의식을 느끼는 무능한 모성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지배 이데올로기가 만든 모성의 이항대립을 넘어서지 못하고 가족의 수호신으로 그려진 것은 이 소설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영화 <피에타>는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인해 몰락해 가는 청계천을 배경으로 해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동물로 전락한 이강도와 같은 인간 군상들이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결함에 의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미선 또한 '순결한 모성' 이미지라기보다는 성모와 창녀가 뒤섞인 양가적 모성 이미지로 그려진다.

■ 참고 문헌 ■

- [1] 강용운, 한국전후소설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연작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25집, p.72, 2005.
- [2] 켈리 올리버, 박재열 옮김, 크리스테바 읽기, 시와반시사, p.23, 1997.
- [3] 새리 엘 서러, 박미경 옮김, 어머니의 신화, 까치, p.135, 1995.
- [4] 심영희 외, 정상성과 병리성의 경계에 선 모성,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 p.305, 1999.